산업잠수사 김순종 씨 이야기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김순종 씨는 스무 살, 해군 특수부대 해난구조전대(SSU)에서 잠수를 배웠다. 1972년부터 5년 6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전역한 뒤 본격적으로 산업잠수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종종 수난사고 현장에 있었다. 침몰한 배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다. 2014년 4월 16일도 그런 날 중 하루였다.

그날 2014년 4월 16일, 그 배가 가라앉고 "안산 단원고 아이들이 배에 남아 있다고, 같이 아이들을 찾으러 물속으로 가야 한다"고 김순종 씨에게 전화한 건 공우영 민간잠수사였다.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목포에서 온 민간잠수사 네 명이 있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투입된 건 김순종 씨 일행이었다. 첫 잠수에서는 빈손으로 올라왔다.

시야는 흐렸고 배는 점점 기울고 있었다. 물속에서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격실 유리창에 붙어 있었다. 유리창을 깨야 아이들을 꺼내는데 도통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뜨잖아요. 배가 기울어서 격실 창문이 위로 향하니까 아이들이 유리창에 막혀 있더라고요. 워머 끝을 뾰족하게 해서 유리창 모서리 쪽을 내리치니까 깨졌어요. 4명의 아이가 우리 눈앞으로 떠오르더라고요. 2명씩 안고 물 위로 올라왔죠. 그때가 4월 17일이었어요."

국가를 대신해 잠수병에 걸린 사람들

맹골수도[1]는 이름처럼 사납고 거친 바다다. 수면에서 거꾸로 처박힌 세월호 선체까지 22m를 내려가야 했다. 유리창 깨진 곳으로 들어가 격실 곳곳을 훑으며 시신을 찾았다.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로, 혹은 팔짱을 낀 채로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죽음의 순간 곁에 있는 친구를 안거나 손을 꼭 잡는 게 전부였을 아이들의 마지막을 김순종 씨는 보았다.

그래서 12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압축공기를 마시는 잠수사 혈액 속에는 기포가 떠다닌다. 기포가 쌓이면 뼛속까지 들어가 뼈조직이 괴사하는 잠수병에 걸린다. 안전 규정상 잠수사는 12시간의 감압시간을 거쳐야 잠수를

1) 맹골수도(孟骨水道)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곳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이곳에서 침몰하였다.

재개할 수 있는데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김순종 씨는 하루에 네 번 물때가 바뀔 때마다 뛰어들었다. 뼈가 썩는지도 모르고, 2014년 7월 10일 해경의 일방적 퇴거 통보로 구조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민간잠수사들은 자신들의 몸에 무리가 오는 걸 느끼면서도 수색과 인양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김순종 씨는 왼쪽 견관절[2]을 잃었다. 무리한 잠수가 결국 무혈성 골괴사[3]로 이어진 것. 골괴사 진단은 민간잠수사에게 '퇴출'이나 다름없다. 수중회사들은 '세월호 잠수사' 꼬리표에 골괴사까지 얻은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쓰지 않았다. 그날 이후 김순종 씨는 어깨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었다. 두 달간 배 위에서 먹고 살면서 아이들을 부모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40년간 몸담았던 직업을 잃고 지금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다.

소멸시효 이유로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세월호 참사는 세상을 바꿨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도 바꿨다. 민간잠수사들의 노력이 조금은 빛을 보는 듯했다. 2020년 5월 20일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4]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민간잠수사도 개정법에 따라 의료·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골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도 세월호 구조활동과 골괴사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김순종 씨 손을 마지막에 잡아준 건 산재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2022년 6월 20일 김순종 씨의 왼쪽 어깨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다.

산재가 인정된 그해 12월, 그는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장해급여 불승인을 통보했다. 김순종 씨에게 남아있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졌다.

더구나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구조 참여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이 개정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커졌다. 기존에는 잠수사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서 잠수사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해경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잠수사 치료행위와 세월호 구조작업 간의 연관성을 판단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요즘 김순종 씨는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김순종 씨에게 국가는 없었다.

2) 위팔뼈와 어깨뼈 사이의 관절로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자유롭다.
3) 뼛속 혈관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는 병으로 잠수병이라 불린다.
4) 법률 제18954호, 2022.6.10. 일부개정, 2022.6.10. 시행